



박람회장·해양공원·수산물특화시장·낭만포차...

여수 원도심이 살아났다

도심에서 바라본 '여수 밤바다'의 화려한 야경이 관광객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침체됐던 여수 원도심 지역에 민선 6기 출범 이후 활성화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1300만 관광객 목표 달성 이후 지난 5월 기준 500만명이 넘는 방문 관광객 수를 기록하면서 박람회장과 해양 공원, 수산물 특화시장 등 주요 관광지가 있는 여수 원도심 지역이 살아나면서 민선 6기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원도심 지역인 여수 고소동 등 20개 법정동과 돌산읍 기준 지난 2013년 건축허가(신고)현황이 총 30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5년 419건으로 2년 사이 112건(36%)이 늘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말 기준 여수시가 조사한 관광 및 연관산업 사업체는 총 6889개로 지난해 9월 대비 3.4%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역내 고용창출 지표인 일자리 부분에는 총 1만3647명으로 조사돼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선 6기 여수시가 핵심 기지로 내건 국제해양관광 중심 도시 건설과 원도심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전국 관광객이 대거 몰리면서 원도심 활성화의 획기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젊은층 인구유입을 위한 맞춤형 정책에 집중=여수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기존 원도심 활성화 정책기조를 젊은 층을 유입시키기 위한 도시공간과 거주여건 개선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맞춤형 정책추진 효과로 여수시 수정동 옛 시민아파트 부지에 총 175억원을 들여 건설될 200호 행복주택을 오는 2018년 3월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또 여수 관문동 동정시장에도 오는 2019년 6월까지 200억원을 투입해 200호의 주상복합 행복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수시 관문동 (구) KBS사옥 부지에 들어설 286세대의 민간 아파트도 2019년 4월 공급된다.

시는 이처럼 원도심이 관광 중심지로 정



여수시 중앙동 해양공원 200여m 구간에 자리잡은 '낭만포차마차'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여수시 제공>

민선 6기 활성화 정책 성과 건축허가 2년새 112건 늘어 아파트 건설 등 인구 유입 국제해양관광 중심지로 부상

주 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도심 중심부 700여 세대의 공공주택(아파트)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가 완료되면 2000여명이 넘는 인구 유입 효과 등 자생력 확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심 속 고고지대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광림동과 충무동 원도심 고고지대의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생활개선에 집중하면서 주민 행복지수를 높여가고 있다.

실제 여수시가 지난 2년동안 행정력을 집중해 지난해 정부지원 등이 최종 확정된 광림지구 새마을마 사업에 4년 동안 85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올해 2월 선정된 충무지구 새마을마 사업에도 5개 분야의 22개 사업에 총 47억원이 투입된다.

◇낭만포차 등 관광활성화 시책효과로 관광객 만족도 상승=여수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과 함께 관광문화시설 기반구축으로 관광객 증가를 통한 활성화 시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여수거북선 축제 기간에 맞춰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의 식도락을 책임질 낭만 포차마차를 개장했다.

지난해부터 여수관광의 길라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여수밤바다 낭만버스커 거리문화공연을 본격 실시하고 올하는 여수 원도심 지역까지 확대해 다양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낭만버스커 공연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원도심 8곳에서 949팀이 2028회 거리공연을 선보였고, 15만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여수시 군자동 일원에 추진중인 전라좌수영 동헌복원사업과 고소동 전사벽화마을에 버스커 특화마을 기능을 더할 문화도시·마을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원도심 중앙에 위치한 시민과 관광객들의 자연친화적인 쉼터가 될 여수 남산공원을 여수대표 도심공원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민선 6기 주요 핵심 정책이 원도심 지역의 관광객 유입과 인구 유입 효과, 지역 경제 활력 효과 등을 통해 민선 6기 원도심은 물론 여수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이 진정한 행복한 도시 여수를 건설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한화건설 지역사랑...장애인시설에 '꿈에그린 도서관' 개관

여수 웅천지구내에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 한화건설이 여수 지역에 꿈에그린 도서관을 개관했다.

20일 한화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지역 장애인 재활 복지 재단인 여수 동백원에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화 꿈에그린 도서관을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한화건설 조병현 상무 등 20여명의 임직원과 김순빈 여수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박점숙 여수시 사회복지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한화 꿈에그린 도서관은 국내 대표 건설사인 한화건설이 임직원 재능기부와 지역 사랑나눔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도서관 건립과 함께 도서 1200권을 기증하고, 방장고 기증과 노후 시설 개보수도 마무리했다.

김홍용 여수 동백원장은 "한화건설 임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제공해 준 꿈에그린 도서관 덕분에 동백원 가족은 물론 지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임직원들이 최근 여수동백원, 여수시 관계자 등과 함께 꿈에그린 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역 재가 장애인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병현 한화건설 상무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꿈에그린 도서관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건설은 여수 신도심인 웅천 택지지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서는 지하 3층~지상 29층 15개동 규모(1969세대)의 대규모 주거복합단지인 '여수 웅천 꿈에그린'을 조성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식물의 여왕 '아마릴리스' 6개 품종 보호권 획득

화훼농 송정우씨 연구 결실

여수시 소라면의 한 화훼농가가 구근 식물의 여왕인 '아마릴리스' (사진) 6개 품종의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아마릴리스 육종 개발 외길 인생을 걸은 화훼농 송정우(75)씨가 38년간의 오랜 노력 끝에 아마릴리스 '축복1' 등 6개 품종에 대해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획득하는 결실을 보았다.

송씨가 육종 개발에 발을 내딛던 것은 젊은 시절 건강 악화로 휴양 목적으로 갔던 제주도에서 '구근 식물의 여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마릴리스의 아름다움

매력에 빠져들고서부터다.

그는 1997년부터 2년 동안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한 '교잡육종 아마릴리스 증식기술 개발'에 참여해 조직배양 기술을 전수했다.

그는 신품종 육종 개발을 위한 열정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종자를 수집해 오기도 했다. 이때부터 신품종 육성을 위한 계통분리를 완성하는 과정을 거쳐 교잡과 선발, 도태 과정을 수십 차례 반복하는 투혼으로 지금까지 개발한 품종만 30여종에 이른다. 우리나라 화훼육종 기술의 역사는 30여년 정도로 매우 짧고 대다수 국가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꽃이 크고 색이 화려해 서양인들



이 가장 좋아하는 아마릴리스는 종구의 90%를 로얄티를 지불하며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립종자원에서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품종 7종 가운데 6종이 송씨가 개발한 품종이다.

이번 등록된 품종은 적색, 주홍색, 백색 바탕에 중심부에 다양한 별무늬 색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품종들로 정원 텃밭은 물론 분화와 절화 용으로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행복실은 100원 택시' 9개 마을 800명 혜택

여수시는 20일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실은 100원 택시'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4개 읍면동 9개 마을에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이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만 지불하면 별도의 추가요금 없이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면동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차액요금은 시에서 직접 택시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대상 지역은 돌산읍 삼장과 소라면 운암·김대·남해촌, 울천면 치동·연화·수문포, 송도(늑도), 월호동 내동 마을로,



주철현 여수시장이 최근 '행복실은 100원 택시'에 시승해 운행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주민 8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100원 택시' 운영을 위해 전남도에 사업을 신청해 매년 소요 사업비의 50%를 지원받게 됐다"

면서 "지속적으로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램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동림동 광신프로그램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로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